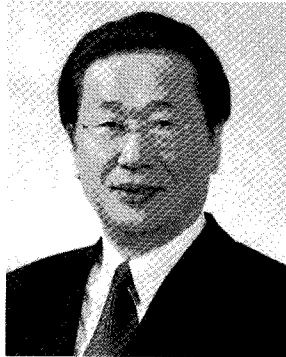


OPS시트생산라인 도입, 내달 본격 생산

품질 · 가격경쟁력 갖춘 제품 통해 시장 경쟁



▶ 오원석 대표이사

발전하는 기업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들은 최고의 품질, 가격경쟁력, 시대가 요구하는 적절한 제품 공급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결코 소홀하지 않다.

포장산업계는 오랜동안 하나의 아이টে임을 고수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업계의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아이টে임, 시대가 요구하는 제품, 환경을 고려한 제품이 유저에게 빠르게 어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부분만을 고집하는 것은 역시 아직은 업계의 여건이 어렵기때문일 것이라 짐작된다.

늘 새로운 아이টে임을 쫓으며 아울러 품질향상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동성화학공업(주)(대표이사

오원석)이 최근에는 PVC시트가 환경문제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발빠른 대응으로 일본에서 OPS라인을 도입,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5년 동양마이닐이란 상호로 설립되어 현재의 평택공장에서 처음 태동한 동성화학공업은 87년 동성화학공업(주)으로 상호를 변경, 법인으로 전환하고 오원석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후 지속적인 설비증설과 공장확장을 추진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동성화학공업(주)은 92년 환경적응형 합성수지 시트인 'ECO-P-SHEET' 개발에 성공해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ECO-P-SHEET란 환경적응형으로 소각이 용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제품이다.

동성화학공업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되었다는 데 더욱 큰 의의를 두고있는 이 제품은 현재까지도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국내 각종 선물용 트레이시장의 약 85%를 점유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 제품의 원리는 유기체인 합성수지에 무기물 첨가제를 혼입하여 연소발생량을 저하시켜 소각시 소각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소각후 기초



◀ 동성화학공업이 이 달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OPS시트 제품

레진, 첨가제, 안정제 등을 분해하고 CO₂, H₂O, CaO의 간단한 무기물질의 산류로 인체 및 자연 환경에 적용하는 소재"라고 총무부 최경태 과장은 설명했다.

특히 이 제품은 개발과 동시에 정부에서 발포스티렌 사용을 규제하여 98년의 경우 예상외의 매출실적을 기록한 동성화학공업은 현재에도 많은 대기업의 선물세트 트레용도로 판매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주력제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제품은 지난 94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구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주최한 우수 포장상품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포장개발성공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동성화학기술이 돋보이는 또하나의 제품인 다층시트는 기존에 한가지 소재로서는 만족시킬

수 없는 물성을 여러소재를 사용하여 다층 구성된 제품으로 90년 개발된 바 있다.

고차단성을 가진 이 다층시트는 시트중간의 차단층에 의해서 외부공기의 투과가 차단되므로 내용물의 장기보존이 가능하며 보향성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표면층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장기보존 식품포장에 적합하다.

이외에 차단성이 없는 다층시트도 시트표면 및 중간층이 서로 다른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용도에 따른 소재선택이 가능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식품과 포장에 있어 중요한 소재로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수출전망이 밝은 품목이며 용도로는 장기저장 식품용기, 호상요구 르트용기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 국내시트 시장은 그 수요의 대부분을 PVC가 점유해 왔으나 PVC가 소각시 다이옥신이 배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사용이 규



▲ 장기보존이 가능한 다층시트

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시장에 대한 대체 제품으로 PET시트가 국내에 선보이면서 상당부분을 대체해 왔으나 PET시트로의 적용이 어려운 제품이 있어 OPS시트의 필요성이 서서히 대두되어 왔다.

최근 OPS시트 생산라인을 일본으로부터 도입, 국내에서 최초로 OPS시트를 국산화하게 될 동성화학공업 오원석 대표이사는 사단법인 한국플라ستيك재활용협회 회장으로 업계에서 더 잘 알려져 있다.

환경을 고려한 환경부의 합성수지에 대한 문제점 제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선진국의 기본방침인 재활용보다는 규제만을 고집하는 환경부의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오 사장은 이번 OPS라인 도입도 합성수지 업계에서 환경대체품목 생산에 있어 모범을 보인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OPS시트는 고강도·고광택으로 포장효과가

탁월하며 용기의 외관이 견고하므로 내용물의 보호가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일본에서도 연간 10만톤, 대만에서 2만톤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PET시트와 OPS시트의 시장은 용도면에서 분명히 구분되고 있으며 그 점유비율은 약 60:40 정도로 보여집니다”라는 오 사장은 특히 강도를 요하는 품목에는 OPS시트를 선호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백화점에서는 대부분 OPS시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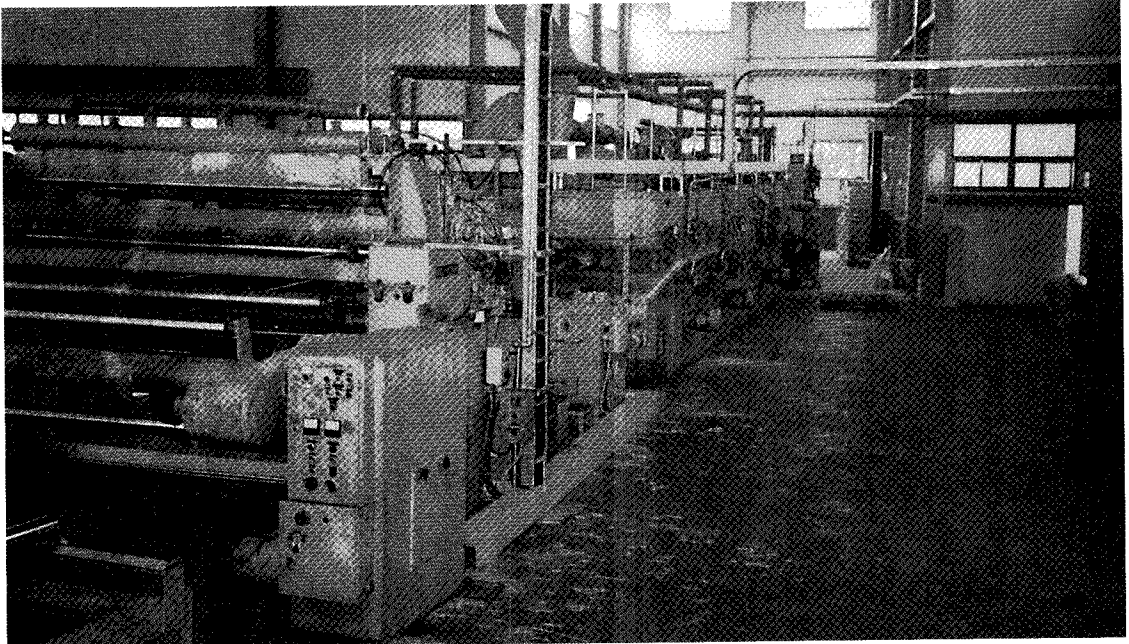
그러나 원료가격의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여전히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미 연신된 상태를 다시 진공 성형하는 기술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내수시장에서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시장으로 점차 확대 시킬 계획인 동성화학공업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게 된다.

60여명의 종업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성화



▲ 재활용이 용이한 FPP-SHEET



▲ 동성화학공업(주)의 평택공장 내부전경

학공업은 지난 IMF에 오히려 수출물량의 대폭 증가로 매출이 기대 이상으로 증가했다.

동성화학공업은 올해 OPS제품 생산, 판매 개시와 함께 사업의 새로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성화학공업은 이미 시제품을 생산하여 유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론이 나지 않는 일회용품에 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업계는 이에 대한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팽팽한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국내 산업계를 말살시키는 결과

만을 초래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던 오원석 사장을 떠올리며 그간 합성수지가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다. ☐

이선하기자

귀사를 홍보하실 기회를 찾고 있다면
월간 포장계 지면을 활용하십시오.
포장산업 각 분야의 독자에게
귀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부
02-835-9041/5